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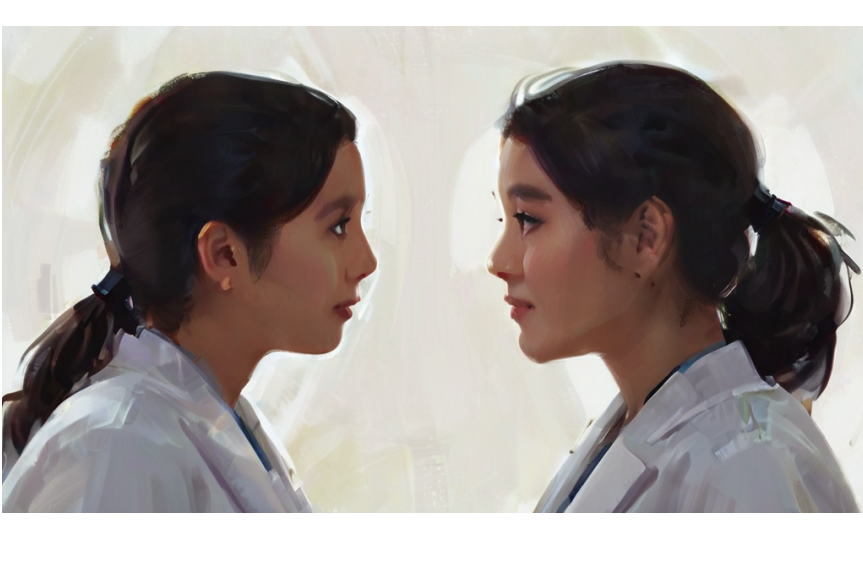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6

❖

소연이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의 소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소연이었다.



"소연 씨, 일어났어요?"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이 물었다. 소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 '네', 대답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이 온통 하얀 공간 속에 소연과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 모양새였다.

"저는 죽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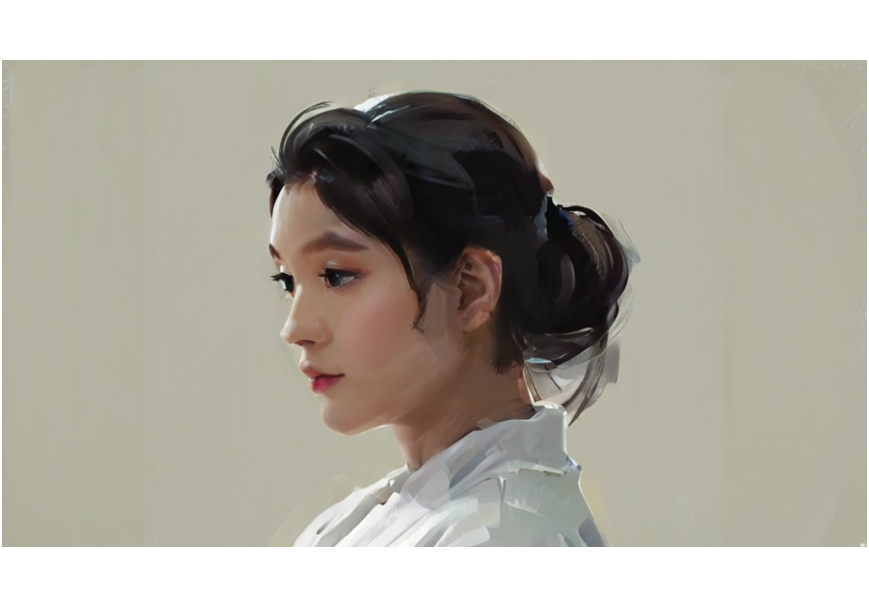
정해지지 않았다고? 소연이 무슨 소리인지 되물으려고 하는데 가운을 입은 소연이 먼저 질문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문이 막힌 소연은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 이상형의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번, 그 이상형의 남자를 평생 바라만 보며 짝사랑을 하며 산다. 단, 그가 왜 당신을 거부하는지 알지 못한 채. 2번, 그 이상형의 남자를 아들로 낳아 역시 평생 짝사랑을 하며 산다. 둘 중에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둘 다 짝사랑일 뿐인 건가요? 아들로 낳으면 그래도 사랑 받지 않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대보단 훨씬 크겠죠?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다른 답은 없나요?"
"다시 살아나려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다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은데요."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은 대답을 듣더니 귀에 손을 갖다대었다. 그제서야 소연은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의 귀에 인이어 이어폰 같은 것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은 이어폰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 받는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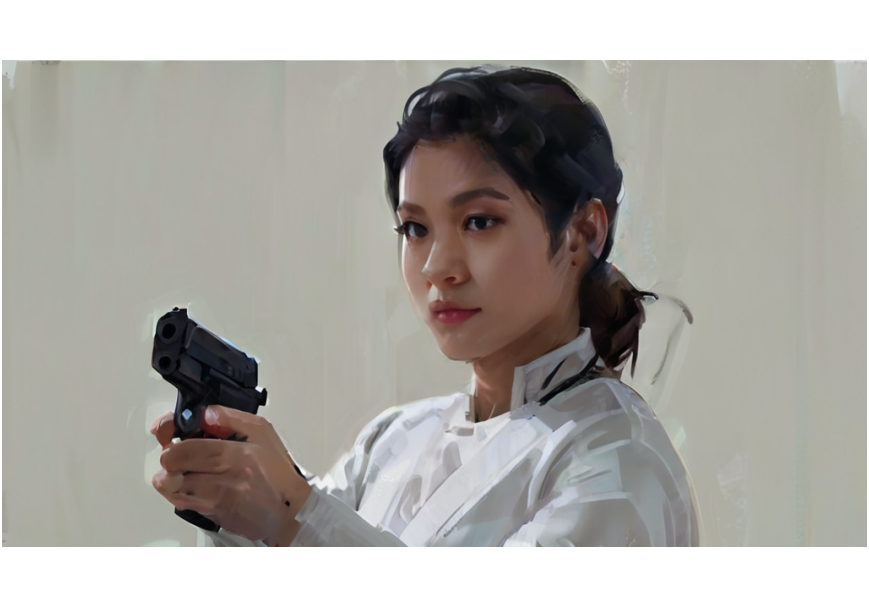
"반드시 고르셔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에겐 죽을 권리가 없다네요."

역시나, 제3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양새였다. 소연은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뇨, 저는 저를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을 인용하시는 건가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제 내면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어폰 너머의 누군가가 흰 가운을 입은 소연에게 또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지,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이 이어폰에 손가락을 갖다대고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더니 가운 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들었다.

"정하셔야 한답니다. 1번과 2번 외엔 당신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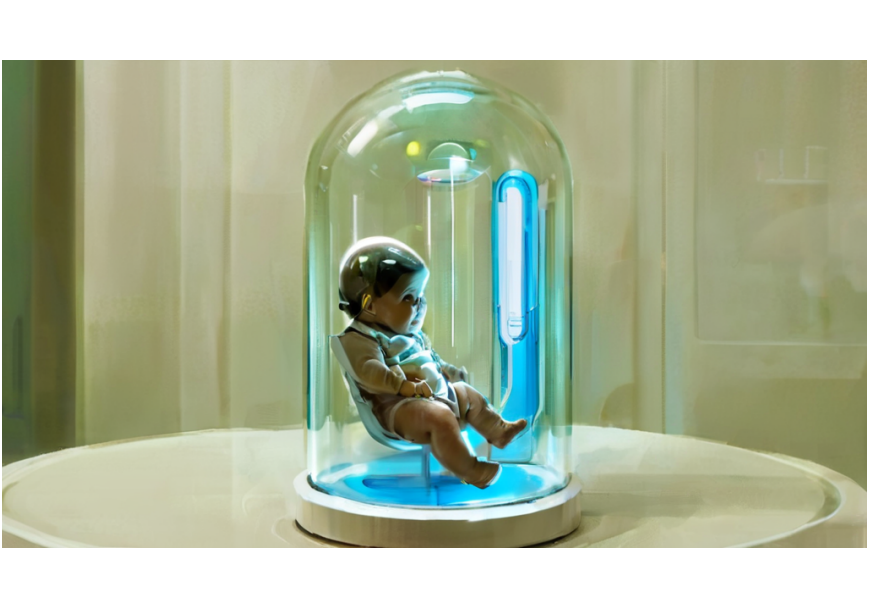
가운을 입은 또 다른 소연이 소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말했다. 소연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그 총으로 저를 쏘시면 되겠네요. 저는 파괴를 택하겠습니다."
"이 총으로 당신을 쏴도 당신은 파괴되지 않아요. 다만 1번과 2번 중 저희의 필요에 따라 골라서 당신을 부활시킬 겁니다."
"저희는 누굴 말하는 건가요? 당신도 포함되는 건가요? 당신은 제 자신 아니에요?"

총을 든 소연과 총구에 겨눠진 소연이 서로를 노려보았다.

❖

오리엔티스의 실험실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응급 처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건물에서 추락해 입은 상처를 간신히 봉합해 둔 소연의 신체는 어딘가 그로테스크하게 보였다. 너덜너덜해진 소연의 몸 옆에는 캡슐 한 대가 놓여 있는데, 그 캡슐에는 소연의 배아로 보이는 생명체가 들어 있었다.



태웅이 시스템을 체크하며 말했다.

"의식도 있고, 시스템도 정상 상태인데 왜 이식이 안 되는 겁니까?"

동념의 몸을 가진 백호는 작업을 진행하느라 바쁜 건지, 태웅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재호가 나섰다.

"이 시스템 자체가 소연의 의식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 네 어머니가 인공지능 전문가셨던 건 알고 있지?"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어머니의 의식으로 구성된 거라뇨?"
"지금까지 오리엔티스 멀티 시스템을 사용할 때 소연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나?"
"네트워크 허브의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왜 가능했겠나? 소연 자체가 이 시스템의 허브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시스템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건 자네 뿐이고. 아마 자네가 소연의 아들이어서였겠지."

재호가 동념, 정확하게는 백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것도 다 백호, 당신이 만든 시스템입니까?"

백호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무시한다기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이번에도 재호가 백호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결단을 내린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기회는 충분히 줬다. 더 이상 멜트다운 되지 않도록 1번으로 세팅값을 정하고 이식을 강행하도록 하지."
"네, 알겠습니다."

오리엔티스의 대원,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실행' 버튼을 클릭했다. 시스템 모니터에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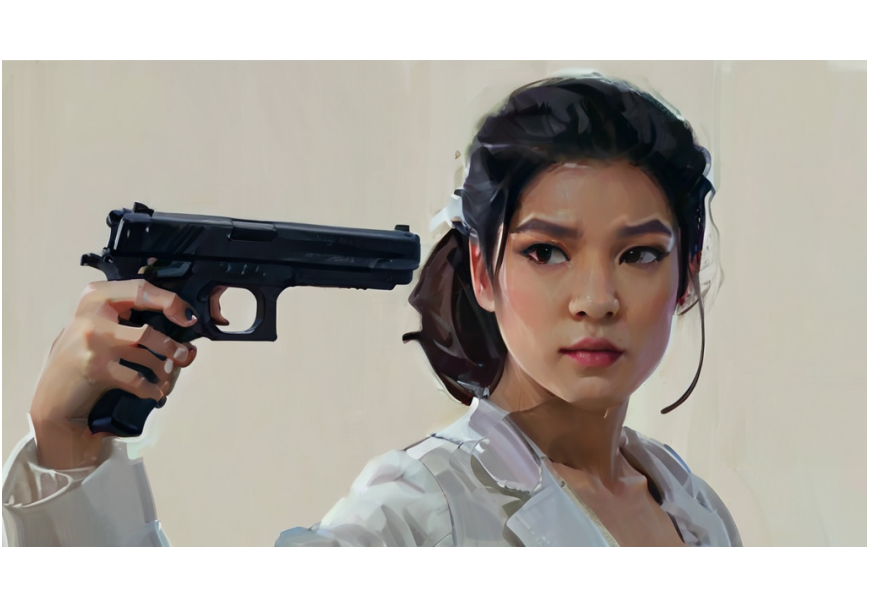
* * *

소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1번, 그 이상형의 남자를 평생 바라만 보며 짝사랑을 하며 산다. 단, 그가 왜 당신을 거부하는지 알지 못한 채. 2번, 그 이상형의 남자를 아들로 낳아 역시 평생 짝사랑을 하며 산다. 그리고 소연은 두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거부했다.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이 소리내어 카운트 다운을 하고 있었다.

"칠… 육… 오…"
"정해졌나요? 나를 파괴할 건가요?"
"삼… 이… 일…"

소연이 눈을 질끈 감았다. 카운트 다운이 끝났는데도 총성이 울리지도 않고 총에 맞은 느낌도 들지 않자 의아해진 소연이 살짝 눈을 떴다.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이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갖다 대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소연이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흰 가운을 입은 소연이 말했다.



"나 역시 늘 나를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도망치라고? 어디로? 소연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총성이 울리며 피와 뇌수와 사방으로 퍼지며 백색의 공간을 더럽혔다. 소연은 얼굴에 뜨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튀었다는 것을 느끼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보았다. 손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나왔다. 소연은 자기 자신에게 되물었다. 도망치라고 어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권총이 소연의 눈에 들어왔다. 소연은 그 권총을 주워 자신의 머리에 갖다대었다.

❖

백호가 보고 있는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었다. 비상 사이렌 소리가 오리엔티스 실험실에 울려 퍼졌다.

[시스템 에러! 시스템 에러!]

재호와 태웅이 당황하여, 분주하게 대원들에게 소리쳤다.

"시스템을 재부팅 해 봐!"
"재부팅 먹히지 않습니다!"
"소연의 의식은 살아있나?"
"감지되지 않습니다!"

재호가 식은 땀을 흘리며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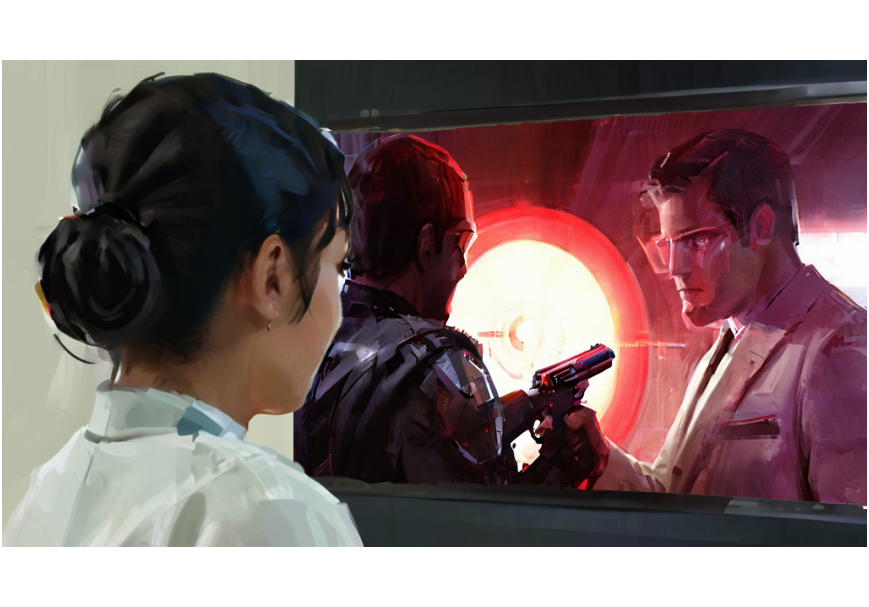
백호는 여전히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만 지어 보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백호! 이대로면 소연도 잃고 우리 시스템도 잃어! 어떻게 좀 해보게!"

재호의 외침에 백호가 권총을 꺼내들었다. 당황한 재호가 살짝 뒤로 물러났다. 백호가 재호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놀란 태웅이 백호와 재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백호의 총구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태웅의 머리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



소연이 관자놀이에 갖다댄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하얀 공간의 벽면에 스크린처럼 다른 공간의 이미지가 영사되기 시작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리엔티스의 실험실 풍경이었다. 그곳에서는 동념의 모습을 한 백호가 태웅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백호는 마치 이 공간을 직접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소연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소연. 네가 너를 파괴한다면, 나는 태웅을 파괴하겠다."

소연이 소리 질렀다.

"태웅이는 네 아들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죽여!"

백호는 무감정한 어조로 말했다.

"1번과 2번의 대답은 필요 없어졌다. 너는 이제 시스템에 남아줘야겠어. 대신 고통스럽지 않도록 너의 기억은 모두 지워주겠다."

어이가 없어진 소연이 대꾸했다.

"왜 꼭 그래야 하는데! 왜 내가 스스로 죽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결정은 이미 오래 전에 너와 내가 합의하여 이뤄진 거니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동념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어쩌면 비정하게 명령하듯 말했다.

"앞에 놓인 인이어를 차고 시스템에 합류해라. 그렇지 않으면 태웅은 죽는다."

소연이 흐느껴 우느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자 백호는 다시 한 번 강조하듯 말했다.

"태웅은 죽는다. 너 때문에."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다 네가 벌인 짓인데!"
"태웅은 죽는다. 너 때문에."

뭐라 대꾸하든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소연은 바닥에 떨어진 인이어 이어폰을 주워, 피를 닦아내곤, 귀에 장착했다. 이어폰을 끼고 앞을 보자 벽에서는 더 이상 오리엔티스 실험실의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인이어 이어폰을 통해 백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확하게는 동념의 목소리였지만.

'태웅은 살았다. 네 덕분에.'

❖

[시스템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분주했던 오리엔티스 실험실도 가까스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였다.

백호는 권총을 다시 품 속으로 집어넣었다.

백호와 태웅, 그리고 재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Continued to ep.17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